

실속 재테크

휴가철 주식 투자전략

박스권 장세... 팔지말고 들고 가라

분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보유 중인 주식을 휴가철 때 미리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지에 대한 갈등이다.

더욱이 코스피지수가 1,800선을 코앞에 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요즘, 곧 박스권 장세를 가늠히 벗어날 것인 전망과 당분간 상승탄력이 둔해질 것인 전망이 맞서고 있어 휴가를 떠나는 투자자들에게 적잖은 시름거리가 되고 있다.

증권사 전문가들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휴가철 투자전략'에 대해 '팔지말고 들고가라'고 조언했다. 일부는 "불안한 주식은 팔고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박종모 광주지점장은 "주식시장이 당분간 박스권

코스피 1800선 코앞...당분간 폭락·폭등 없을 듯 전문가들 "자동차·철강·IT업종 눈여겨 봐야"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휴가를 다녀오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1750선에서 머물 것"이라며 "휴가를 앞두고 성급하게 주식을 정리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스권에서 저점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 관련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호재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건설주 등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고 추천했다.

미래에셋증권 광주지점 김철수 부장은 "예전에는 휴가철에 주식을 사두면 호조세를 보이는 서머랠리(summer rally)가 있었으나,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옛말이 됐다"며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 양호하다면 휴가기간에도 들고가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김 부장은 "현재 주가 흐름으로 당분간 폭락·폭등 장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우증권 양기인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악재가 주가에 거의 반영됐기 때문에 조만간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갈 것으로 본다"며 "휴가철에도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등 내수주가 유망하고 저평가됐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괜찮다"고 말했다. 삼성화재·SK에너지·GS홀딩스도 추천했다.

한나대투증권 김지환 센터장과 KTB투자증권 박희운 센터장은 "하반기 시장이 괜찮아서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유망종목으로 김 센터장은 하이닉스·기아차·우리금융지주·대우증권을 들고 박 센터장은 호남석유, 대한유화, 고려아연, LIG손해보험, 우리투자증권 등을 꼽았다.

IBK투자증권 임진균 센터장은 "휴가철에는 실적 호전 종목에 중심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수출보다 내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CJ제일제당 등 내수주가 유망하고 저평가됐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괜찮다"고 말했다.

한편 신영증권의 조용준 센터장은 "우량주 등 장기 투자하기 편한 주식이면 갖고 있고 불안한 단기 테마주라면 정리한 뒤 휴가를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21일 김포공항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운동' 모금액 50억원 돌파 기념식에서 운영위원장(왼쪽 네번째) 사장과 안성기(세번째) 유니세프 친선대사 등이 아프리카 우물을 상징하는 모금함에 동전을 채우고 있다.

아시아나, 사랑의 동전 50억원

아시아나항공이 펼친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운동' 모금액이 50억원을 돌파했다. 1994년 유니세프와 공동 모금운동을 벌인지 16년만의 일이다.

이 운동은 국내에서는 쓸모없는 외국 동전을 모아 세계의 불우 아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액의 동전들이 기부금의 대부분이었지만, 차츰 인식이 확산돼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

유니세프와 공동모금 16년만에 탐승객 기부로 일군 '작은기적'

이들에게 500만개의 영양 비스킷을, 1190만명의 어린이에게 연필과 공책을 제공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아시아나항공 사장)은 "고객들의 순수한 기부를 통해 마련된 50억원은 전 세계의 고통 받는 아동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식수난을 해결하는 우물 지원 사업 등에도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시티' 입점 상인들 뿔났다

한국 복권판매 대국 경제력대비 美·日 추월

光銀 예금 금리 최고 0.4%P ↑

고객소리 잘듣는 기업 신세계계 등 5곳 선정

'빅마트측 밀린 대금 안주고 되레 수수료 요구'

'땡처리업체 입점 영업환경도 엉망'... 강력 반발

빅마트의 패션아울렛 '빅시티 매복점' 입점 상인들이 빅마트가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다 '땡처리 업체'를 입주시켜 영업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패션아울렛 빅시티 매복점 입점 상인들은 "빅마트가 입점상인에게 지급해야 할 5월 판매대금을 주지 않고 빅시티 매복점에 '땡처리 업체'를 입주시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빅시티 매복점은 빅마트가 대기업 유통업체 공세에 밀려 활로를 모색하던 중 지난 3월 새롭게 문을 연 패션아울렛 매장으로 톰스토리·크로커다

일 등 18개 의류 브랜드가 입점해 영업을 해왔다.

이들 중 16곳은 물품 판매대금을 빅마트에 입금 한 뒤 1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됐다. 현재 5개 업체는 문을 닫아 11곳만 남은 상태다.

빅마트가 11개 수수료 매장 상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5월 판매대금은 모두 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빅마트는 수수료 매장 상인들에게 6~7월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입점 상인들은 밀린 판매대금 선 지급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입점상인들은 빅마트가 경영난에 빠지자 6월부터 매출을 개별관리하면서 수수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빅시티 매복점 비상대책위원회는 "빅마트가 빈 매장에 땡처리 업체를 불러서 영업환경이 엉망이 된 데다 5월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6~7월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빅마트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본격화돼 부동산이 매각이 되어야 밀린 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류업체는 빈 점포가 늘자 매장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력 대비 복권 판매 비중이 미국과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비해 주요 선진국보다 복권 산업이 발달했다는 의미이지만 복권으로 인생역전을 하는 한탕주의가 심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지난해 전세계 복권 판매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권 판매 비중은 0.43%로 미국(0.39%), 독일(0.35%), 영국(0.39%), 일본(0.22%)보다 컸다.

한국의 지난해 GDP는 8330억달러, 복권 판매액은 35억8600만달러였다. 미국은 GDP가 14조2560억달러였으나 복권 판매액은 549억78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일본은 GDP가 5조680억달러에 복권 판매액은 109억2700만달러였다.

은행들 줄줄이 인상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열풍에 만여 있다. 예·적금의 금리 인상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21일 대표적인 상품인 플러스 다모아 예금의 금리를 최저 0.1%포인트에서 최고 0.4%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1년 만기 상품의 경우 종전 3.4%에서 3.8%, 2년 만기는 3.6%에서 4.0%, 3년 만기는 3.8%에서 4.2%로 각각 올랐다. 6개월 만기 예금은 3.0%에서 3.1%로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22일부터 정기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종전보다 0.1~0.3%포인트 올린다. 1년 만기 '369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종전 3.5%에서 3.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1년 만기 '생막걸리 적금'의 금리는 연 3.1%로 종전보다 0.1%포인트 상승 조정된다. 이 적금의 2년제와 3년제 금리는 각각

연 3.5%와 연 3.9%로 종전보다 0.2%포인트씩 인상된다.

여기에 우대금리 0.5%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금리는 연 3.6~4.4%로 오른다.

국민은행은 이날 적금금리를 최고 0.50%포인트 인상했고, 정기예금 금리는 23일 최대 0.2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KB행복담 적금은 1년~2년 미만의 기본금리를 연 3.20%로 0.40%포인트 인상했으며 2년~3년 미만과 3년 이상은 0.50%포인트 인상해 각각 연 3.60%, 연 3.80%가 적용된다.

외환은행은 14일 예금 기간별로 금리를 0.1~0.25%포인트 올렸고, 기업은행도 지난 16일 종전보다 0.1~0.3%포인트 인상했다.

저축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다. 신라저축은행은 1년 이상 만기(12~24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4.3%에서 4.5%로 0.2%포인트 인상했다. /연미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21일 신세계백화점과 KB국민은행 등 5개 기업을 '고객의 소리를 우선하는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과 KB국민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고 등급인 AAA를 받았고, 대교와 대한통운은 다음 등급인 AA에 선정됐다.

KMAC측은 신세계백화점은 고객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최적의 쇼핑 솔루션을 제공했고 KB국민은행은 '전환적 민원대응시스템'을 운영한 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객만족경영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점이 선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연미기자 penfoot@kwangju.co.kr

DIANA 이태리 슈즈 CASATO 런칭기념 20% 할인. 이태리 구두, 스니커즈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런칭기념으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DIANA 다이아나 명품관 062-223-7300

남성 탈모 / 여성탈모 초전성모의원. 탈모 치료의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탈모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초전성모의원 010-8088-1395